

### 최근에 발행된 논문의 저자, 제목, 잡지명

Fathers' occupation and pregnancy outcome

McDonald AD, McDonald JC, Armstrong B, Cherry NM, Nolin AD, Robert D.

*Br J Ind Med* 1989 ; 46(5) : 329-33

Correlation of tissue, blood, and air partition coefficients of volatile organic chemicals.

Paterson S, Mackay D.

*Br J Ind Med* 1989 ; 46(5) : 321-8

Long term neurotoxicity of styrene. A quantitative study of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(GFA) and S-100.

Rosengren LE, Haglid KG.

*Br J Ind Med* 1989 ; 46(5) : 316-20

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patterns among South African iron moulders.

Sitas F, Douglas AJ, Webster EC.

*Br J Ind Med* 1989 ; 46(5) : 310-5

Respiratory hazards in hard metal workers : a cross sectional study.

Meyer-Bisch C, Pham QT, Mur JM, Massin N, Moulin JJ, Teculescu D, Carton B, Pierre F, Baruthio F.

*Br J Ind Med* 1989 ; 46(5) : 302-9

Respiratory symptoms and impairment in shipyard welders and caulker/burners.

Cotes JE, Feinmann EL, Male VJ, Rennie FS, Wickham CA.

*Br J Ind Med* 1989 ; 46(5) : 292-301

Mortality among United States Coast Guard marine inspectors.

Blair A, Haas T, Prosser R, Morrisette M, Blackman K, Grauman D, Van Dusen P, Moran F. *Arch Environ Health* 1989 ; 44(3) : 150-6

Renal function and long-term low mercury vapor exposure.

Piikivi L, Ruokonen A. *Arch Environ Health* 1989 ; 44(3) : 146-9

Return to work following back surgery : a review. Taylor ME.

*Am J Ind Med* 1989 ; 16(1) : 79-88

Neurasthenic complaints and psychometric function of tolueneexposed rotogravure printers. Orbaek P, Nise G. *Am J Ind Med* 1989;16(1):67-77

Silica exposure and silicosis among Ontario hardrock miners: I. Methodology. Muir DC, Shannon HS, Julian JA, Verma DK, Sebestyen A, Bernholz CD. *Am J Ind Med* 1989;16(1):5-11

## 주요 논문 초록

### 『작업장에서 일반적인 후부손상(nonspecific back injury)에 대한 지출』

저자: Federspiel CF, Guy D, Kane D, Spengler D.

출처: *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* 1989;31(11): 919-924

이 연구는 1986년도 테네시주의 29,421 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자료에 근거한 것이다. 총 지출액은 1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액수였다. 약 8,000예 (27%)가 후부손상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90% 이상이 구체적으로 특정 부위를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후부 손상이었다. 이러한 일반적인 후부손상에 의한 지출은 총 지출액의 40%를 점유하고 있었다. 비교를 위하여 사지 손상의 8,696예를 이용하였다. 총 지급액의 40%가 요양급여이었다. 각각의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후부손상 환자중 10%에 해당되는 2,941명이 총 지급액의 57%에 해당되는 액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후부손상에 있어서 최근에 임상적 진료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.

### 『스웨덴 농업에 있어서 농약 취급자의 암발생』

저자: Wiklund K, Dich J, Holm LE, Ek-lund G.

출처: *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* 1989;46:809-814

1965년부터 1976년까지 농업에 있어서 농약 취급 면허를 받은 20,245명의 코호트를 분석하여 암발생을 연구하였다. 대다수가 남자이였으며 (99%) 50%가 193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었다. 스웨덴 암등록 (Swedish Cancer Register)에 의하여 면허 발급일 이후 1982년 말까지 이 코호트가 추적되었고 평균 추적기간은 12.2년이었다. 첫 폭로 이후에서부터 암발생까지의 평균기간은 12.2년보다 길었다. 코호트의 20%는 1950년대에 농약에 폭로되었다.

558예의 악성종양이 발견되어 기대치인 649.8예보다 표준화된 발생비 (standardised incidence ratio: SIR)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(SIR=0.86). 간암 (SIR=0.45), 췌장암 (SIR=0.50), 폐암 (SIR=0.50) 과 신장암 (SIR=0.53)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발생을 보였다. 전체 암에 있어서 암발생 위험의 증가나 시간에 따른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. 고환암의 표준화된 발생비는 증가되었고 (SIR=1.55), 면허취득으로부터의 기간과 비례하여 증가하였다. 18예의 고환암이 발견되었다. 1935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에서 전체 암발생이 유의하지는 않지만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(SIR=1.07). 농약은 주로 농부들이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농약 취급자들을 일반 농부들과 비교하였다. 농약 취급자들에게서 고환암, 신경계암, 내분비암과 임파종 (Hodgkin's disease)의 발생 위험이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.